

#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과과정 분석 및 인식 조사 연구

## A Study on Curriculum Analysis and Awareness of the Development of Standard Curriculum for Library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장 수 현 (Su Hyun Jang)\*  
박 상 옥 (Sang Uk Park)\*\*  
남 영 준 (Young Joon Nam)\*\*\*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앞선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 NCS 직무 단위 및 사서 자격 기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2021년 기준 전국 문헌정보학 개설 교과목을 조사 및 분석해 현황을 알아보았다. 셋째, 사서 및 정보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로 인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21년에 개설된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중 가장 교과목 수가 높은 분야는 '정보서비스'였으며, 가장 빈번하게 도출된 키워드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학년별 최우선 요구 교과목을 도출하였다. 이후 현장의 사서 및 정보전문가의 의견을 설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단순한 표준화뿐만이 아닌 다양한 이용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과목의 운영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siderations prior to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at secures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curriculum nationally. To this end, firs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notification related to NCS job units and librarian qualification standard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as reviewed. Second, The current statu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ourses opene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ationwide. Third, surveys and focus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librarians and information experts. Th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s opened in 2021, the field with the highest number of subjects was "information servic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st frequently derived keyword was "information."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IPA analysis and Borich demand analysis, and the top priority required subjects for each grade were derive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opinions of librarians and information experts in the field through surveys and focus interviews, it was confirmed that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not only in standardization but also in parallel with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subjects that can cover various users.

키워드: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교육과정, 교과목, 국가직무능력표준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andard Curriculum, Curriculum, Course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jangsu8174@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국민건강보험 전문도서관 사서(psu2069@naver.com) (공동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namyj@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2월 21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3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199-232,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199>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문헌정보학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며, 일선 도서관 현장에서의 사서의 역할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전문가로서 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또한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과 이용자라는 현장 중심적이라는 특성을 지닌 학문이다. 이러한 실용 학문은 현장의 특성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교육과정 또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에서 정보전문가로서 사서의 역할과 함께 교육기관에서의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교육 현장에서는 사회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신,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보다 교육 기관별 특성화된 교육과 각 교육 기관별로 유연성을 강조한 교육과정이 대두되고 있다(유사라, 2018). 반면 의학, 간호학 등 국가고시가 운영되는 전공과목에서는 교육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까지 사서의 양성을 위한 대학 학부 과정의 문헌정보학과(사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교육과정을 이하 문헌정보학과로 통일함)의 개설과목의 명칭과 종류, 개설과정의 수, 이수 학점 등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

발 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NCS 국가직무표준 중 문헌정보학 분야, 사서 자격 관련 고시, 국내 개설 교과과정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분석된 자료의 검증을 위한 단계로서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9개 협회회의 현장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교육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앞선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추후 사서의 전문직으로서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취합한 표준교육과정의 제시를 통해 사서의 현장 적응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후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공으로서 표준교육과정 이외에 각 교육 기관별 특성화된 과정을 개발 및 반영한다면 공통 교육과 특성화 교육 모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NCS 국가직무표준

국가직무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고용노동부, 2021). 2021년 기준 1,039개의 NCS가 개발되었으며, 기업의 조직 내 직무분석 외에

도 교육 훈련이나 자격 제도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NCS를 대학 교육과정에 적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연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은경, 홍성화, 오상훈(2015)은 4년제 대학 관광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대다수가 4년제 대학에서의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진, 권기정(2018)은 NCS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해 2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후 만족도 및 교육 성과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 또한, NCS와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제안하는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차성중, 2016a).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공인된 표준화 과정을 거친 직무수행능력의 척도인 NCS를 활용해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NCS가 직무 현상이 아닌, 대학의 교과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사서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재직 중인 정보전문가 및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인터뷰의 질문 요소로 차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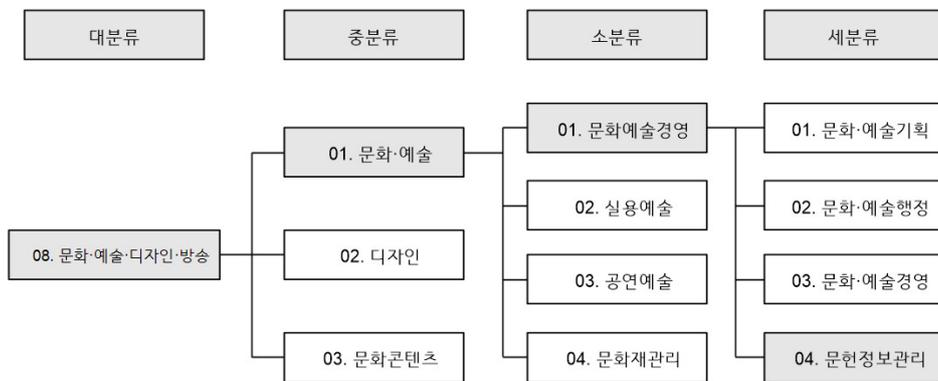
### 2.1.1 문헌정보학 분야 국가직무표준

문헌정보학 분야 NCS는 분류상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대분류 아래 '01. 문화·예술' 중분류와 '01. 문화예술경영' 소분류를 거쳐 '04. 문헌정보관리' 세분류로 위치해있으며, 다음 <그림 1>과 같다.

문헌정보관리는, 이용자가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의 문헌정보를 생성, 수집, 조직, 보존 및 제공하는 일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NCS 상의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능력 단위는 2022년 기준 총 16개로 다음의 <표 1>과 같다. 또한 이러한 능력 단위는 총 48개의 능력단위 요소로 세분되어 있다.

### 2.1.2 문헌정보학 분야 NCS 학습모델

NCS 학습모델이란, 현장의 직무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NCS와는 달리 NCS의 능력단위를



<그림 1> NCS 분류 중 문헌정보관리의 위치

〈표 1〉 NCS 직무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수준	능력단위요소
0801010402_14v2	문헌정보조직	4	1. 분류하기 2. 목록작성하기 3. 메타데이터작성하기
0801010403_14v2	이용자 정보 서비스	5	1.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2. 이용자정보서비스 운영하기 3.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0801010406_16v3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5	1. 문헌 연구하기 2. 연구 수행하기 3. 연구 결과 활용하기
0801010407_14v2	문헌정보 이용 분석	5	1. 문헌정보 이용 평가하기 2. 시설 이용 평가하기 3. 프로그램 운영 평가하기 4. 연구 성과 분석하기
0801010408_14v2	문헌 정보 보존	5	1. 수집자료 관리하기 2. 보존하기 3. 폐기하기 4. 디지털 아카이빙
0801010409_14v2	문헌정보큐레이션	5	1. 정보 분석하기 2. 정보 가공하기 3. 생산된 정보 평가하기
0801010410_14v2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5	1.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2.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3.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0801010412_16v3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	5	1. 이용자 정보 요구분석하기 2. 문헌정보 자료 수집하기 3. 수집정책 개발하기
0801010413_16v3	문헌정보수집	5	1. 문헌정보 선택하기 2. 문헌정보 입수하기 3. 문헌정보 평가하기
0801010414_16v3	문헌정보시스템구축	5	1. 문헌정보 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2.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3.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0801010415_16v3	문헌정보시스템운영	5	1.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2.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0801010416_16v3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	5	1. 기획전략 수립하기 2. 조직인사관리하기
0801010417_16v3	도서관 유관기관 협력	5	1. 정책 분석 적용하기 2.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0801010418_16v3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수립	3	1. 프로그램 요구분석하기 2. 프로그램 설계하기 3.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하기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수준	능력단위요소
0801010419_16v3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3	1. 프로그램진행하기 2. 프로그램평가하기
0801010420_16v1	전자문서 정보관리	3	1. 전자문서 생성하기 2. 전자문서 분류하기 3. 전자문서 활용하기 4. 전자문서 이관하기 5. 전자문서 보존하기

〈표 2〉 NCS 문헌정보관리 학습모듈

분류번호	학습모듈명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요소
LM0801010402_14v2	문헌정보조직	문헌정보조직	1. 분류하기 2. 목록작성하기 3. 메타데이터작성하기
LM0801010403_14v2	이용자 정보 서비스/ 문헌정보큐레이션	이용자 정보 서비스	1.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2. 이용자정보서비스 운영하기 3.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LM0801010406_14v2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1. 문헌 연구하기 2. 연구 수행하기 3. 연구 결과 활용하기
LM0801010407_14v2	문헌정보 이용 분석	문헌정보 이용 분석	1. 문헌정보 이용 평가하기 2. 시설 이용 평가하기 3. 프로그램 운영 평가하기 4. 연구 성과 분석하기
LM0801010408_14v2	문헌 정보 보존	문헌 정보 보존	1. 수집자료 관리하기 2. 보존하기 3. 폐기하기 4. 디지털 아카이빙
LM0801010409_14v2	이용자 정보 서비스/ 문헌정보큐레이션	문헌정보 큐레이션	1. 정보 분석하기 2. 정보 가공하기 3. 생산된 정보 평가하기
LM0801010410_14v2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1.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2.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3.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교육 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수학  
습자료'이다(고용노동부, 2021). NCS 학습모듈  
과 NCS는 각 요소가 긴밀하게 매핑되어 있으며,  
요구 능력 및 기능을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학습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 단위로 개발하였다.  
문헌정보관리의 NCS 학습모듈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와 같다.

### 2.2 문헌정보학 관련 고시 분석

국내 사서 자격증의 발급은 도서관법 제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별표 3]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2018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고시하여 <표 3>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설문용 표준교육과정 시안 제작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2.3 선행연구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가적 표준교육과정은 성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많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사였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조

사 및 개선 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표준교육과정 및 NCS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정보학 분야의 표준교육과정을 구상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2009)는 사서 및 사서교사의 자격 기준 및 국가 고시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 표준교육과정의 구성 교과목을 확인 및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문헌정보학 표준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2012) 또한 국내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및 국내 현장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종별 직무분석결과를 진행해 필수과목 6과목, 핵심과목 6개목, 선택과목 20과목을 포함한 표준 교과과정 운영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사서 자격 운영모형의 분석 또한 포함된다.

두 번째로 문헌정보학과 분야 NCS를 분석

<표 3>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8-30호(2018.9.1.)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 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계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2급 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Ⅱ)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Ⅱ)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Ⅱ) 저작권론(Ⅱ)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Ⅰ) 독서지도론(Ⅰ) 저작권론(Ⅰ)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선택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의 교과과정에서 선택

하고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보완사항을 제안하거나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개선점을 제안하는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차성중(2016a)은 문헌정보학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현장실습교육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NCS를 기반으로 한 문헌정보학 현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하고, NCS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실습교육 내용의 기준 및 지침을 구체화하여 실제 도서관 현장의 업무와 적절하게 부합되는 보다 실증적인 문헌정보학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차성중(2016b) 또한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문헌정보학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 단위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NCS의 '문헌정보관리' 직무가 보다 도서관 현장의 실무를 반영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에는 도서관 및 정보센터 업무 분야의 새로운 직무 분리와 '디지털도서관 운영'의 능력단위 추가,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 능력단위의 세분화 등이 포함된다.

이종창과 권나현(2017)은 문헌정보학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국내외 사서직 관련 역량 지표를 분석하고 NCS의 취약점을 보완한 역량 지표 NCS-CPD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을 분석해 최종적으로는 핵심역량 별 교육강좌를 제안하였다. 박태연 외(2018)는 영역별 사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사서 핵심 직무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16개 능력 단위를 공공도서관의 핵심 업무 영역인 8개로 통합하였으며 보완 및 수정 단계를 거쳐 한국도서관협회가 2015년 개발한 미래 사서

핵심역량 65개 항목들을 매핑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8개 영역, 56개 항목의 사서 직무를 도출하였다.

셋째, 현행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사라(2018)는 웹 3.0 빅데이터 환경에서 사서에게 요구되는 메타 리터러시 역량을 도출하고, 메타리터러시 중심 신규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2018년도 현행 대학 커리큘럼을 메타리터러시 역량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전공 교과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홍현진, 노영희, 김동석(2021)은 30여 년간의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개설 및 교과목 현황을 전국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교과목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분야별 대표교과목명을 선정해 필수, 선택과목 및 필요도와 적합한 수강 시기에 대한 설문을 문헌정보학과 교수 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발과 관련된 해외의 연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Saladyanant(2014)는 태국 대학의 9개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의 교과목과 IFLA 전문도서관/정보프로그램 기준의 G2 항목 커리큘럼 요소를 비교 및 매핑하는 과정을 통해 각 교과과정의 어느 측면에 ICT가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활용', '정보관리', '정보요구도 평가 및 정보서비스 설계과정' 등에 대한 교과목 과정을 그룹화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한 표

준교육과정의 개발 외에도 NCS와의 연계를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 교과과정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현행 교과과정 분석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시사점을 제안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NCS의 '문헌정보관리' 직무와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긴밀하게 연관시키는 것보다, 이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성중(2016a)은 '문헌정보관리' 직무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 분야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이는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관리' 직무와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과의 연관성을 도출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앞선 고려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 앞서, 국내 현행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전수조사하는 방법 외에도,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교과목 및 교과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키워드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 등의 분석기법들을 차용하였다. 또한, 실제 문헌정보학 분야 현장의 정보전문가와 사서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교과목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조사하고,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NCS의 연계 가능성 및 관련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NCS와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으로 삼아 유의미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2.4 핵심 용어 정의

### 2.4.1 일반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일정한 계획과 지정된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일반 교육과정'의 이론적 정의는 세부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전달하는 지식의 조직화, 체계화한 모든 활동과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학습 내용과 생활 경험을 포괄한다.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교과목 지식이 중심되는 전통적인 형태의 교과 중심 교육과 핵심적인 사실 및 이론, 이를 탐구하는 방법을 기반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있다(이선화,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반 교육과정'이란, 표준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을 의미한다.

### 2.4.2 표준교육과정과 표준교과목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준교육과정'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커리큘럼을 의미한다. 표준교육과정은 대학이 문헌정보학 분야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커리큘럼을 새로 제작하고자 할 때 대학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꼭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참고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준교과목'이란, 표준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목을 의

미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표준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 중에는 국내의 교과과정의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을 추출하고, 교과목 개설 대학 빈도를 기반으로 정렬하고, 최종적으로 현장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의견을 확인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을 일부 차용하여 설문조사에 사용할 표준교육과정 초안과 표준교과목 선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은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구성에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지향형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 직무 능력 단위 및 학습 모듈 현황을 확인한다. 둘째, 2021년 기준 전국 대학교의 문헌정보학 개설과목을 조사하여 분석해 실제적인 현황을 알아본다. 셋째,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9개 부 협의회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설문 대상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해, 최종적으로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 3.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실제 2021년 기준 전국 국내 문헌정보학 개설과목을 조사하여 분석해 실제 현황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국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4년제와 2년제 대학 36개 학교의 교과목 1,180개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수집은 각 대학 홈페이지의 안내 사항 및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 3.3 데이터 분석 기준

상기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기준과 그 정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거나 사용된 방법을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기준은 문헌정보학 분야, 수강 학년, 키워드, 대학 종류, 교과목 간 유기성이다. 항목별 상세한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학문 분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연구 분야별 주제분류표를 제안하고 있다. 학술연구 분야 주제분류는 (인문 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등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분류체계는 대분류(8개) - 중분류(152) - 소분류(1,551개) - 세분류(2,468개)로 구성된 수직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국내 학술연구를 총괄하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가적 제안이기에 본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헌정보학 분야 교과과정 분석

을 위해 학술연구 분야 주제분류표를 사용한 선행연구로는 최상희, 하유진(2019)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대분류 체계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 체육, 복합학 등 8개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학술연구 분야분류표는 연구자 정보관리, 학술연구지원의 관리 통계, 대학의 연구 활동 실태 등의 조사, 인문 사회 분야 연구과제의 접수와 심사 및 평가자의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학술연구 분야 대분류 중 '복합학'에 속하며, 중분류와 소분류별 분류는 <표 4>와 같다. 수집된 각 대학의 교과과정명을 해당 분류표에 적용하

기 위하여 키워드 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소분류·세분류의 키워드와 비교하여 해당 교과목이 학술연구 분야분류표(문헌정보학)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교과목명 정리는 선행연구(홍현진, 노영희, 김동석, 2021)를 참고하여 진행하였으며, 교과목명 외에도 강의 계획서나 교과목 설명 등을 참조하여 학문분류표 기반 분류를 수행하였다.

학년별 분류의 경우, 학과 홈페이지 및 연구 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수강 학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수강 학년에 구별이 없거나 2개 이상의 학년을 수강 학년으로 제시한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4>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표(문헌정보학)

대분류명	중분류명	소분류명	세분류명
복합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일반	정보/도서관정책
			비교문헌정보학
			도서관사
		기록관리/보존	서지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정보서비스
			정보자료/미디어
		정보조직	분류
			편목/메타데이터
			색인/초록
			전문용어/시소러스
			자동색인/요약
			자동분류/클러스터링
			검색모형/기법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디지털도서관		
	정보공학		
	계량정보학		
	정보교육		
	기타문헌정보학		

둘째, 키워드 분석을 진행해 2021년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교과과목의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교과목 분석을 위해 교과목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로는 최상희(2019)와 최상희, 하유진(2019)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교과목 제목 및 과목설명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한 키워드의 빈도 분석 외에도 파이썬 한글 형태소 분석기인 'KoNLPy'를 사용해 교과목 제목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 후 워드클라우드(WordCloud)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셋째, 4년제 문헌정보학과와 2년제 문헌정보학과의 학제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과목별 수강 시기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진호, 이창무(2019)의 연구를 참조하여 국내 2년제 대학 중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5개교의 개설 교과목 118개를 대상으로 분석 및 시각화 도구인 'Netminer365'을 사용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 3.4 설문 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9개 부협회의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현장의 정보전문가와 사서들의 인식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9개 부협회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구글 설문폼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선행연구(홍현진, 노영희, 김동석, 2021)를 참고하여 작

성하였다.

### 3.5 면담 조사

데이터 조사 및 분석과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후, 설문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해,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NCS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면담 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은 선행연구(차성중, 2016a)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코딩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면담은 녹음 및 전사, 코더들의 내용 분석 과정을 거친 뒤 범주화를 수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 직무표준의 한계점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역량 지표를 제시한 연구(이종창, 권나현, 2017; 차성중, 2016b)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NCS의 선택적 및 비판적 적용에 앞서 현장의 사서들의 NCS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인식을 먼저 확인하고자 기존의 문헌정보학 NCS 직무 분석을 대상으로 포커스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다.

## 4. 데이터 분석 결과

### 4.1 학술연구분야 주제분류

학술연구분야 주제분류 및 수강 학년에 따른 교과목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문헌정보학 내 분야별 개설 교과목의 빈도 분석을 위해 2021년 국내 대학 문헌정보학과 개설 교과목을 학술

〈표 5〉 학술연구분야 주제분류표 중주제명 및 학년별 분류

대분류	학년별 분류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타	과목 수	비율(%)
문헌정보학일반	52	27	17	44	14	154	13.05
기록관리/보존	3	11	14	14	5	47	3.98
서지학	5	17	9	7	13	51	4.3
도서관/정보센터경영	10	40	53	17	13	133	11.27
정보서비스	28	50	62	33	18	191	16.19
정보자료/미디어	6	27	31	17	7	88	7.46
정보조직	18	65	45	16	16	160	13.6
정보검색	3	24	25	7	8	67	5.7
디지털도서관	0	5	16	3	1	25	2.1
정보공학	20	54	33	28	32	167	14.2
계량정보학	0	1	1	4	1	7	0.6
정보교육	0	0	0	0	0	0	0.0
기타문헌정보학	5	11	12	32	12	72	6.1
기타(비전공항목 등)	0	0	0	0	18	18	1.52
합계	147	332	318	218	165	1,180	100.0

연구분야 주제분류에 기초하여 구분하였고 수강 학년별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가장 교과목 수가 높은 중주제명은 ‘정보서비스’로 16.1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보공학’, ‘정보조직’, ‘문헌정보학일반’ 순으로 나타났다. ‘계량정보학’과 ‘서지학’은 각각 0.6%과 4.3%으로 타 중 주제명과 비교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정보교육’의 경우 개설된 교과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주제명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주제를 포함하는 중 주제는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 ‘정보검색’, ‘기타문헌정보학’ 총 4개의 중 주제명을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 일반 중 ‘도서관사’는 27개, ‘문헌정보학일반’이 125개로 나타났다. ‘도서관사’에 분류된 과목으로는 ‘도서관문화사’, ‘출판 및 도서관사’, ‘책의 역사와 문화’ 등이 있다.

정보조직 중 ‘분류’는 42개, ‘색인/초록’이 6

개, ‘편목/메타데이터’는 106개로 나타났다. 이외의 교과목 6개는 정보조직으로 분류되었지만, 따로 별도의 소 주제명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분류’에 분류된 과목으로는 ‘자료분류론’, ‘정보분류론’ 등이 있으며, ‘색인/초록’에 분류된 과목으로는 ‘색인 및 시소러스’, ‘색인 및 초록 작성’ 등이 있다. ‘편목/메타데이터’의 경우 ‘메타데이터의 이해’, ‘자료조직(목록)’, ‘목록규칙의 이해’ 등의 교과목이 분류되었다.

정보검색 중 ‘데이터베이스’는 26개, ‘자동색인/요약’이 1개로 나타났으며, 이 외의 교과목 40개는 정보조직으로 분류되었지만, 따로 별도의 소 주제명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서관데이터베이스론’, ‘데이터베이스 검색 실습’ 등이 분류되었으며, ‘자동색인/요약’의 경우 ‘빅데이터 색인 및 관리’ 교과목이 분류되었다.

기타문헌정보학 중 ‘실습’은 43개로 나타났으

며 그 외의 교과목 29개는 별도의 소 주제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습'의 경우 '도서관 실습', '도서관 정보센터 실습', '문헌정보학 현장 실습' 등이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 결과는 설문조사용 표준교육과정 시안을 작성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설문조사용 표준교육과정 시안에서는 국내 개설된 전체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을 학술연구분야별, 학년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표준교육과정 시안에서는 학년별 우세하게 나타난 학술연구 분야의 교과목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이후 빈도에 따른 차등 배정하였다.

#### 4.2 교과목 키워드 분석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전체 개설된 1,180개 교과목 제목에서 추출한 키워드 194개 중 상위 25개의 빈도수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설문조사용 표준교육과정 시안 작성 시 중복 및 유사 교과목명을 정리하여 표준화하였다. 이후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교과목명을 선정하여 시안용 교과목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명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정보'로 총 316번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1,180개 교과목 중 약 26.78%에 해당하는 빈도이다.

<표 6> 교과목 추출 키워드 출현 빈도

순위	교과목 추출 키워드	출현 빈도(총 과목 수 대비 출현 비율)
1	정보	316 (26.78%)
2	도서관	175 (14.83%)
3	자료	80 (6.78%)
4	문헌정보학	65 (5.50%)
5	실습	62 (5.254%)
6	경영	46 (3.90%)
7	독서	44 (3.73%)
8	서비스, 관리	39 (3.30%)
9	디지털	38 (3.22%)
10	정보검색	37 (3.14%)
11	조직, 분류	36 (3.05%)
12	목록	34 (2.88%)
13	운영	30 (2.54%)
14	시스템, 데이터	29 (2.46%)
15	연구	26 (2.20%)
16	디자인	25 (2.12%)
17	데이터베이스, 교육, 연습	24 (2.03%)
18	캡스톤	23 (1.95%)
19	장서, 기록관리, 분석	22 (1.86%)
20	서지학, 메타데이터, 학교, 설계, 문화	20 (1.69%)

추가로 교과목명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교과목명 워드 클라우드 분석

세부적으로 <표 6>과 같이 ‘정보’, ‘도서관’, ‘사

료’ 등의 키워드가 상위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3 학제 간 학문분류

본 연구에서는 설문과 면담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사서들의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의견을 묻기 전에, 먼저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2, 3년제와 4년제 대학의 개설 교과목을 비교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대학 종류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전체 교과목 1,180개 중 4년제 대학의 교과목은 90%인 1,062개를 차지하였으며 2, 3년제의 교과목은 그 나머지만 10%가량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정보서비스’가 15.54%

<표 7> 학술연구분야 주제분류표 중 주제명 및 학년별 분류

대분류	2, 3년제		4년제	
	과목 수	비율(%)	과목 수	비율(%)
문헌정보학일반	13	11.02	141	13.28
기록관리/보존	4	3.39	43	4.05
서지학	3	2.54	48	4.52
도서관/정보센터경영	17	14.41	116	10.92
정보서비스	26	22.03	165	15.54
정보자료/미디어	4	3.39	84	7.91
정보조직	15	12.71	145	13.65
정보검색	6	5.08	61	5.74
디지털도서관	1	0.85	24	2.26
정보공학	4	3.39	163	15.35
계량정보학	1	0.85	6	0.56
정보교육	0	0.00	0	0.00
기타문헌정보학	8	6.78	64	6.03
기타(비전공항목 등)	16	13.56	2	0.19
합계	118	100.00	1,062	100.00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공학'이 15.35%로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문헌정보학일반'과 '정보조직' 또한 각각 13.28%과 13.65%로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2, 3년제 대학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중 주제명은 '정보서비스'로 4년제와 같았지만 22.03%로 더 큰 비율로 나타났다.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과 '정보조직' 등의 실질적으로 사서와 정보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분야는 각각 14.41%, 12.71%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4년제 대학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난 '정보공학'의 경우 3.3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2, 3년제 대학의 학술연구 분야 상위 빈도는 순차적으로 정보서비스, 도서관/정보센터 경영, 정보조직, 문헌정보학일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4년제 대학의 경우 정보서비스, 정보공학, 정보조직, 문헌정보학일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차이는 실질적인 운영과 테크니션적인 요소의 차이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2, 3년제 대학의 졸업 시기 및 현장 진입 시기 등을 고려한 교과 구성이라고 추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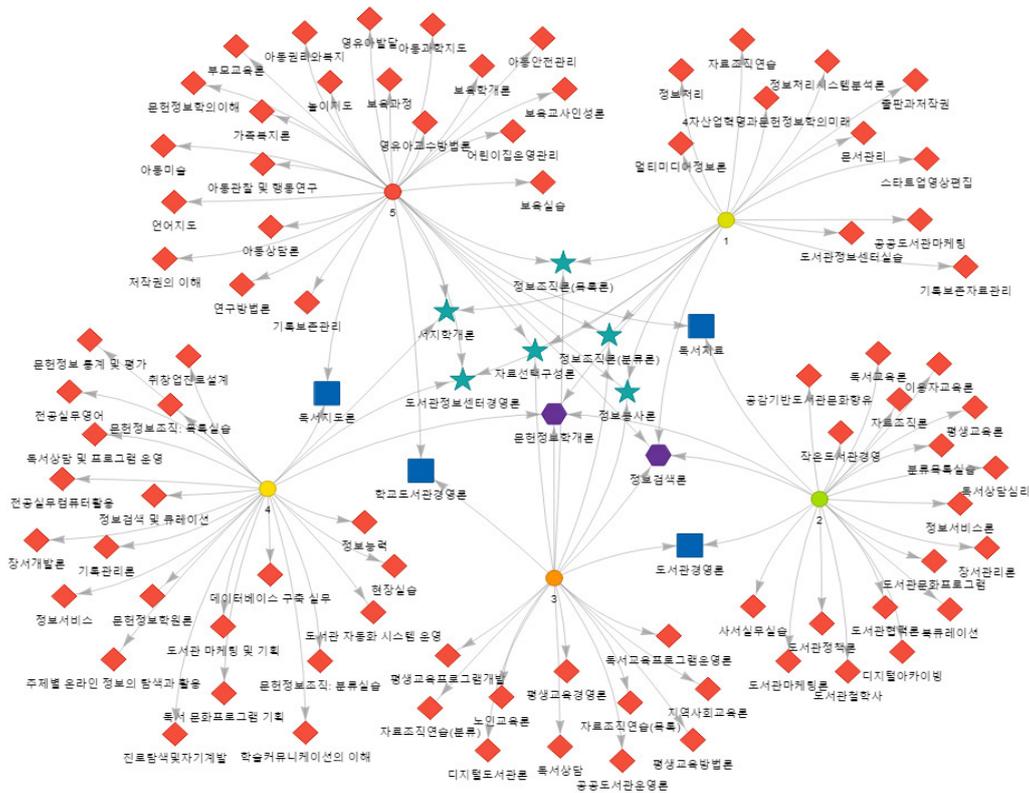
#### 4.4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국내 2, 3년제 대학 중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5개교의 개설 교과목 118개를 대상으로 분석 및 시각화 도구인 'Netmine365'을 사용하여 각 교과목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2, 3년제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정보서비스', '도서관/정보센터 경영', '정보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4.3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과 비교해 졸업 시기 및 현장 진입 시기가 빠른 2, 3년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 적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비전공항목을 포함하는 '기타' 항목이 4년제에 비해 13.5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년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2, 3년제 대학의 2021년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간의 연관성을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총 12개의 교과목이 일부 대학에서 동일하게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육각형은 4개 대학, 별은 3개 대학, 정사각형은 2개 대학에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며, 마름모는 각 대학이 2021년에 독자적으로 개설한 문헌정보학 분야 교과목이다. '문헌정보학개론'과 '정보검색론'은 5개 대학 중 4개 대학에서 동시에 개설하였으며, '서지학개론', '정보조직론(목록론)', '정보조직론(분류론)',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론', '정보봉사론', '자료선택구성론'의 6개 교과목은 3개 대학에서 동시에 개설되었다. 이런 다빈출 교과목은 크게 자료와 이용자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현장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사회네트워크 분석 결과

#### 4.5 소결

본 연구에서 진행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것은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 개설 교과목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설문용 표준교육과정 시안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학술연구분야 주제분류 및 수강 학년에 따라 전국 36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1,180개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가장 교과목 수가 빈번하게 나타난 중 주제명은 '정보서비스'로 나타났다. '계량정보학'과 '서지학'은 타 중 주제

명과 비교해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교과목의 제목에서 추출한 194개의 키워드 중 상위 25개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정보', '도서관', '자료' 등의 키워드가 상위 출현 빈도로 나타났다. 셋째, 학제 간 학문분류를 분석한 결과,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개설 교과목의 학술연구분야 주제분류표 중 주제명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분야는 '정보공학'이었으며, 4년제 대학에서는 2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2, 3년제 대학의 경우 '정보공학'은 3.39%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국내 2, 3년제 대학의 개설 교과목 118개를 대상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12개의 교과목이 일부 대학에서 동일하게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헌정보학개론', '정보검색론' 등의 교과목은 5개 대학 중 4개 대학에서 동시에 개설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1년에 개설된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한편, 학술연구분야 주제분류별/학년별 분류를 시행하여 학년별 우세하게 나타난 학술연구 분야를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용 표준교육과정 시안 개발 시 빈도에 따른 차등 배정을 시행하였다. 이후 중복 및 유사 교과목명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과목 키워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교과목명을 시안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사용할 표준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 5. 설문조사 분석 결과

### 5.1 설문대상 및 방법

설문대상은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9개 부 협의

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2월 3일~8일 총 6일간 구글 설문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총 102개의 응답이 접수되었으며, SPSS 25 ver.를 활용하여 요구분석을 시행하였다.

세부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IPA(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기법, The Lusus for Focus 모델을 함께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교육과정에 포함될 세부적인 과목별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5.2 설문지 구성안

설문 문항은 크게 인구통계, 필요성, 적절성, 개방형 질의, 대표 교과목의 5개 항목, 7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더불어 응답자의 원활한 설문 진행을 위해 상기 교과목 수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표준교육과정 시안을 함께 활용하였다.

### 5.3 설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준교육과정 시안은 현

〈표 8〉 설문구성안

구분	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li> <li>•연령</li> <li>•근무년수</li> <li>•사서 자격증 등급</li> <li>•소속</li> <li>•학력</li> </ul>	6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학년 및 학기별 표준교과목 필요성</li> </ul>	28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학년 및 학기별 표준교과목 수강시기의 적절성</li> </ul>	28
개방형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li> </ul>	1
대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개 학문분류별 대표 교과목</li> </ul>	8

장 사서들의 원활한 설문조사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36개 문헌정보학과 의 1,180개 교과목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한국 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주제분류표를 기반으로 정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차적으로 각 학년별 교과목의 주제별 빈도를 분석하여 적절한 수강 시기를 도출하였다. 이후 교과목 키워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중복 및 유사 교과목명을 정리·표준화하여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교과목명을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9>와 같이 설문용 표준교육과정 시안이 최종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장 사서들의 원활한 설문조사 참여를 위해 서만 사용하였다.

### 5.3.1 기술통계

본 연구는 표준교육과정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포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정보전문가 즉, 사서들은 현재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9개

협회의 사무국장 등을 통해 협회원들의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8개 협의회 102명의 응답을 회신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성 32명(31.4%), 여성 70명(68.6%)으로 총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26세 ~ 6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연수 또한 5년 이하 ~ 26년 이상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과 경험을 가진 현장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응답자들은 모두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서로 학교도서관(36.3%), 공공도서관(26.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닌 사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직원과 비 도서관 직원, 사립 작은도서관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 과반수의 응답자는 학사 수준의 학력(59.8%)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사 수준의 학력 또한 41명(40.2%)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근무 및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

<표 9> 설문용 표준교육과정 시안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 수 (학점 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정보학개론</li> <li>• 정보학개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문화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문화사</li> </ul>	5(15)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서비스론</li> <li>• 장서관리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지학개론</li> <li>• 데이터베이스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론(공공도서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교육론</li> </ul>	6(18)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조직론(분류)</li> <li>• 장서개발론</li> <li>• 정보검색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li> <li>•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론(학교 및 전문 도서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조직론(목록)</li> <li>• 메타데이터</li> <li>• 디지털도서관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조직론(비도서 및 특수)</li> <li>• 색인 및 초록 작성론</li> </ul>	10(30)
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별정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리학개론</li> <li>• 도서관법제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정보학</li> <li>• 정보이용자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li> </ul>	6(18)
과목수 (학점수)	8(24)	7(21)	7(21)	5(15)	27(81)
	도서관/정보센터 실습 (3~4학년 공통) / (3학점)				28(84)

에 분석하는 IPA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시행하였다. 이는 이용자가 평가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Martilla와 James에 의해 시작된 분석 방법이다(Martilla & James, 1997). IPA는 이용자가 평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교차하는 지점을, 만족도를 나타내는 X 축과 중요도를 나타내는 Y 축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에 도식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나 과잉 투자되고 있는 영역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정책개선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해준다(홍승연, 김소은, 이해미, 2021).

이와 더불어 Borich 와 The Lusus of Focus 모델을 사용하여 교육 요구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시행하였다. Borich 분석은 교육목적 달성

정도와 성과 사이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기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을 확인하여 값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요구도 공식이다(Borich, 1980). 이후 The Lusus of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좌표평면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를 함께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의 차이와 함께 바람직한 수준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Borich의 요구도 공식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수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조대연, 2009). 결과적으로 교육 요구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즉, 현장 사서들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추가적인 요구 수준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0〉 인구통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2	31.4	소속	공공도서관	27	26.5
	여성	70	68.6		국립대학도서관	5	4.9
연령	25세 이하	0	0		사립대학도서관	8	7.8
	26세 이상 ~ 30세 이하	14	13.7		시각장애인도서관	0	0
	31세 이상 ~ 40세 이하	40	39.2		신학대학도서관	0	0
	41세 이상 ~ 50세 이하	32	31.4		의학도서관	4	3.9
	51세 이상 ~ 60세 이하	16	15.7		전문대학도서관	2	2.0
	61세 이상	0	0		전문도서관	14	13.7
근무 년수	5년 이하	35	34.3		학교도서관	37	36.3
	6년 이상 ~10년 이하	23	22.5		기타	5	4.9
	11년 이상 ~ 15년 이하	22	21.6		학력	전문학사	0
	16년 이상 ~ 20년 이하	8	7.8	학사		61	59.8
	21년 이상 ~ 25년 이하	11	10.8	석사		41	40.2
26년 이상	3	2.9	박사	0		0	
사서 자격증 등급	1급 정사서	22	21.6	기타	0	0	
	2급 정사서	75	73.5	총계		102	100.0
	준사서	5	4.9				
	없음	0	0				

### 5.3.2 IPA 분석

본 연구의 실문은 응답자의 편의성과 연구 결과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교육과정 시안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제출된 응답은 학년별 필요성을 Y축, 적절성을 X축으로 설정하여 2X2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년별 핵심 교과목의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 1학년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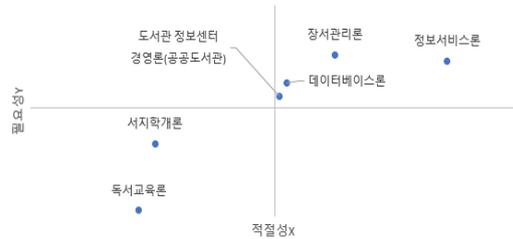
제안된 표준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1학년 교과목에서 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 개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도서관문화사, 출판문화사, 출판론에 대해서는 단기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2학년 교과목에서는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론(공공도서관),

장서관리론, 데이터베이스론, 정보서비스론과 같이 현장 직무와 밀접한 영향을 지닌 교과목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지학개론, 독서교육론과 같이 현장 업무에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교과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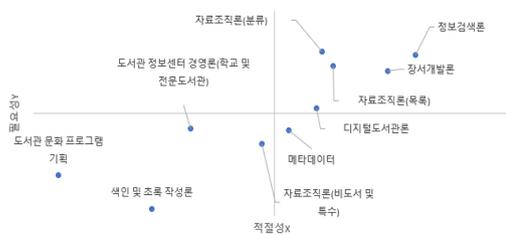
3학년 교과목에서는 메타데이터 과목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는 최근 도서관과 정보센터 현장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활용되는 현상을 연계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론(학교 또는 전문도서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기획, 색인 및 초록 작성론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2학년 교과목과 유사한 모습으로 자료조직론(분류), 자료조직론(목록), 장서개발론, 정보검색론과 같은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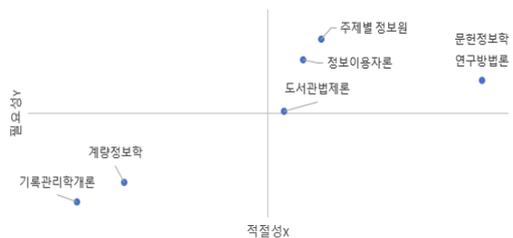
<그림 4> 1학년 교과목 IPA 분석 결과



<그림 5> 2학년 교과목 IPA 분석 결과



<그림 6> 3학년 교과목 IPA 분석 결과



<그림 7> 4학년 교과목 IPA 분석 결과

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4학년 교과목의 경우 계량정보학, 기록관리학개론과 같이 정통적 문헌정보학 이외의 영역에 대해 중장기적 개선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IPA 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은 현장 업무와 밀접한 교과목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5.3.3 Borich 요구도 분석

Borich 요구도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필요성(미래)와 적절성(현재)의 차이를 넘어 합리적인 교육 요구분석을 시행하였다.

학년별 교과목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시행한 결과, 먼저 1학년 교과목에서는 정보학개론과 문헌정보학 개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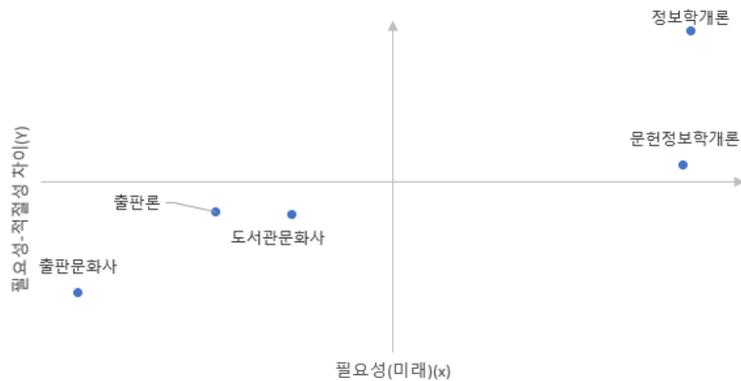
다. 이를 The Lusus for Focus(이하 TLfF) 모델로 살펴보면 위 <그림 8>과 같다. 또한, 이를 앞선 IPA 분석과 비교하면 유사하지만, 최선호 교과목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학 개론과 문헌정보학 개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은 <표 12>와 같다.

Borich 분석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요구가 확인되고 있으며, 장서관리론과 데이터베이스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교과목에 대한 요구도의 경우는 IPA 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으나, 독서교육론과 같은 하위 요구 교과목에 대해서는 응

<표 11> 1학년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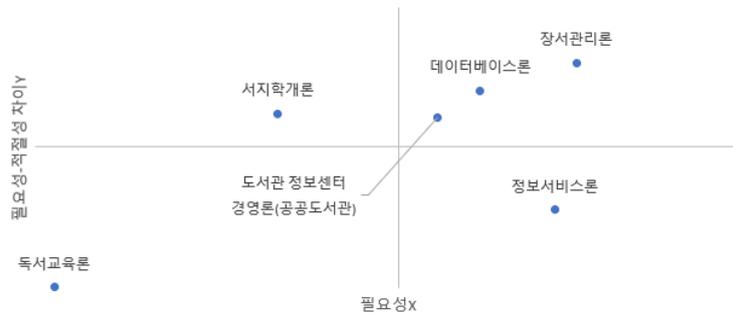
구분	미래 필요도	현재 적절성	차이(미래-현재)	Borich 요구도	순위
문헌정보학개론	4.86	4.78	0.078	0.38	2
정보학개론	4.88	4.41	0.471	2.30	1
출판론	3.67	3.73	-0.059	-0.22	3
도서관문화사	3.86	3.93	-0.069	-0.27	4
출판문화사	3.31	3.61	-0.294	-0.97	5



<그림 8> 1학년 교과목 TLfF 모델 루커스

〈표 12〉 2학년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구분	미래 필요도	현재 적절성	차이(미래-현재)	Borich 요구도	순위
정보서비스론	4.66	4.43	0.225	1.05	5
장서관리론	4.70	4.16	0.539	2.53	1
서지학개론	4.15	3.72	0.431	1.79	4
데이터베이스론	4.52	4.04	0.480	2.17	2
도서관 정보 센터 경영론 (공공도서관)	4.44	4.02	0.422	1.87	3
독서교육론	3.74	3.68	0.059	0.2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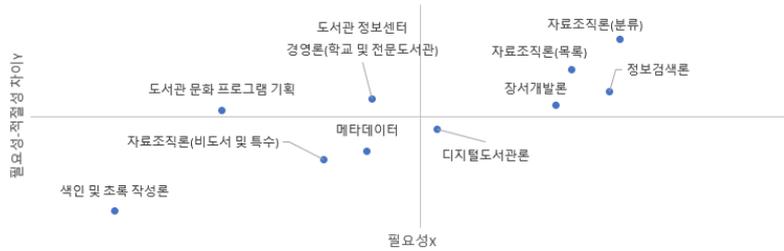
〈그림 9〉 2학년 교과목 TLfF 모델

〈표 13〉 3학년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구분	미래 필요도	현재 적절성	차이(미래-현재)	Borich 요구도	순위
자료조직론(분류)	4.78	4.26	0.520	2.49	1
장서개발론	4.67	4.38	0.284	1.33	4
정보검색론	4.76	4.43	0.333	1.59	3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	4.06	3.79	0.265	1.07	6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론 (학교 및 전문도서관)	4.33	4.03	0.304	1.32	5
자료조직론(목록)	4.70	4.28	0.412	1.93	2
메타데이터	4.32	4.21	0.118	0.51	8
디지털도서관론	4.45	4.25	0.196	0.87	7
자료조직론(비도서 및 특수)	4.25	4.16	0.088	0.37	9
색인 및 초록 작성론	3.86	3.96	-0.098	-0.38	10

답자의 요구 정도, 개선 정도가 매우 부족함이 나타났다. 3학년 교육과정의 경우는 최하위 요구과목을 제외한 전체 교과목에 대해 긍정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최우선 요구 교과목은 자료조직론(분류), 자료조직론(목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 5개 과목 모두 현장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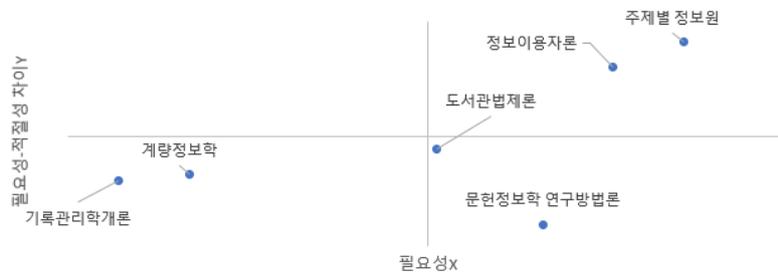
〈그림 10〉 3학년 교과목 TLF 모델

IPA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 자료조직론(비도서 및 특수)와 같이 관중별로 업무 적용 정도가 발생하는 과목에 대한 요구가 더욱 낮게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학년 교육과정의 경우 이용자와 밀접한 교과목이라고 판단되는 주제별 정보원과 정보이용자론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TLF와 IPA 분석과의 비교 결과 또한 요구도의 극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과 같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과목일수록 요구도는 하향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설문의 응답 전반에서 현장의 요구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년별 주요 교과목의 분석 결과 현장 업무와의 적용도에 따라 설문 응답자들의

〈표 14〉 4학년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구분	미래 필요도	현재 적절성	차이(미래-현재)	Borich 요구도	순위
주제별 정보원	4.34	4.21	0.137	0.60	1
기록 관리학개론	3.87	3.95	-0.078	-0.30	5
도서관 법제론	4.14	4.17	-0.029	-0.12	3
계량 정보학	3.93	4.00	-0.069	-0.27	4
정보이용자론	4.28	4.19	0.098	0.42	2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4.23	4.37	-0.147	-0.62	6



〈그림 11〉 4학년 교과목 TLF 모델 루커스

요구도가 변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현장의 사서들은 졸업 이후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한 문헌정보학과 인력 양성을 요구한다고 판단된다.

## 6. 대면조사 분석 결과

### 6.1 대면조사 대상 및 연구 방법

앞에서 제안한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시안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최종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종 도서관 현장의 사서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실무자 중에서 면담 요청에 응한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요청에 응한 참가자는 현재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이며 학교도서관 소속 사서교사 2명, 전문도

서관 소속 사서 1명, 사립대학도서관 소속 사서 1명, 국립 대학도서관 소속 사서 1명이었다. 인터뷰는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ZOOM을 사용하여 약 30분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응답자 간의 의견이 교환 등으로 답변이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1회 인터뷰 시 응답자 1명으로 제한을 하였다.

반면 연구자는 질문자와 감독으로 나누어 함께 참여하였으며, 질문자의 질의 과정을 감독자 감수 및 증재하였다.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녹음 및 전사 과정을 거친 뒤 내용 분석 과정을 거쳐 범주화를 수행하였다.

대면 질의 구성은 앞에서 정리된 시안의 중요도와 필요성 등을 정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질문은 참가자 전원에게 질의하였다. 대면 질의는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NCS 능력 단위의 중요도, 현장 직무와의 연관성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종결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NCS 연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안'에 대한 질문을 포

〈표 15〉 대면 질의 구성안

구분	질문 항목	질문 내용	문항 수
시작 단계	표준교육과정 관련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표</li> <li>• 과거 이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인식</li> <li>•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의 필요성</li> <li>• 제안한 커리큘럼에 대한 의견</li> </ul>	4
이행 및 핵심 단계 (실무 기준)	NCS 능력단위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정보관리' 직무상의 능력 단위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위</li> <li>• '문헌정보관리' 직무상의 능력 단위 중 비교적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능력 단위</li> </ul>	2
	NCS 능력단위와 현장 직무와의 연관성 및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직무와 교과과정의 연관성</li> <li>• '문헌정보관리' 직무상 필요 및 추가 요소</li> </ul>	2
종결 단계	NCS 연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능력단위 고려의 필요성 및 활용 방향</li> </ul>	1

함하였다. 또한 이런 포커스 인터뷰 과정은 전체의 합의를 하는 것 보다, 참가자 전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추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6.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를 일부 매핑한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응답에 대한 분석은 질문지 순으로 진행하였다.

<표 16>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매핑

주제	범주	하위범주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표	정보전문가로서의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관리 및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li> <li>- 정보의 수집 가공 재생산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인 형태로 제공</li> <li>- 정보수집 능력의 함양</li> <li>- 정보전문가로서의 미래인재</li> <li>- 정보의 가치를 판단 및 선별 과정을 거쳐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li> </ul>
	도서관 및 정보센터 업무수행 지식 실무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미래혁명에 발맞춰 도서관 및 정보센터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익히기</li> <li>- 도서관에 알맞은 사서의 양성</li> </ul>
과거 이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인식	만족스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만족</li> <li>- 만족</li> </ul>
	도움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를 통해 교육 필요성을 확인</li> </ul>
	트렌드 변화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트렌드와의 괴리가 발생함</li> <li>- 정보통신기술 및 트렌드에 부합해야 하는 필요성</li> </ul>
	만족도가 떨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 불만족</li> </ul>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의 필요성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자격증에 대한 시험제도가 생긴다면 표준 교과과정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있음</li> <li>- 각 교과목의 사장을 막을 수 있음</li> <li>- 문헌정보학과 필수 교육 기준으로 필요함</li> <li>- 기본적인 틀의 필요성</li> <li>- 현장 직무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이론의 필요성</li> </ul>
제안한 커리큘럼에 대한 의견	과목 보안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지학 분야의 추가 필요성</li> <li>-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의 필요성</li> <li>- 심화 독서 교육의 필요성</li> <li>- 도서관 경영의 세분화 필요성</li> </ul>
	과목 조절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인 및 조록 작성론의 필요성 제고</li> <li>- 출판론과 출판 문화사의 분리 필요성 제고</li> </ul>
	수강대상학년 조절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학개론의 수강대상학년 조절의 필요성</li> </ul>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능력단위 고려의 필요성 및 활용 방향	연계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중심주의인 문헌정보학 과목의 특성상 NCS와의 연계는 필요</li> <li>- 충분히 많이 참고할 수 있음</li> <li>- 취업과 실질적 연계가 있는 NCS를 교과과정에서 고려하는 과정 필요</li> </ul>
	보완 후 연계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제 과정을 거쳐 보완 후 이를 참고해 표준 교과를 마련할 필요성</li> </ul>

(1) 표준교육과정 관련 질문

①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표

문헌정보학과 교육목표에서 주로 제시된 내용은 ‘정보전문가로서의 인재양성’과 ‘도서관 및 정보센터 업무수행지식 실무 함양’이었다. 이러한 답변은, 현장 사서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기에 충분히 실무에 적용 가능한 기술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차 혁명에 발맞춰 도서관 및 정보센터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익히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더 나아가 정보전문가로서 미래인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2)

② 과거 이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인식

과거 이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인식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다.”, “실무에 실제로 나가보니 왜 배웠는지를 알게 되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다.”, “최근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다.”, “정보통신기술 및 트렌드에 발맞춰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이수 단계에서 학생들이 교과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와 대면하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때 배웠던 커리큘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고 그

때는 몰랐지만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내가 이것을 왜 배웠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고 있고요.” (참가자 1)

③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의 필요성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자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틀의 필요성’ 외에도 ‘현장 직무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이론의 필요성’ 측면에서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한, 사서 자격증과 관련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서의 원활한 현장 직무 수행과 사서 자격증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함이라 분석되었다.

“최소한 표준적인 교육과정이 설립된다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계열은 정보의 반감기가 심해서 5년 이후가 되면 금방 흐름이 뒤쳐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헌정보학에서도 이에 맞는 차세대 표준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2)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3)

④ 제안한 커리큘럼에 대한 의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 시안에 대해서는 ‘과목 보완의 필요성’과 ‘과목 조절의 필요성’, ‘수강대상 학년 조절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각 인터뷰 대상자들은 ‘서지학’,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심화 독서 교육’, ‘도서관 경영의 세분화’ 등의 다양한 과목의 보완을 주장하였다. 과목 조절의

경우 '색인 및 초록 작성론'의 필요성이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강대상 학년 조절의 필요성'의 경우 '정보학개론'의 수강대상 학년을 1학년 1학기에서 최소한 3학년 1학기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NCS 능력 단위 중요도

① '문헌정보관리' 직무상의 능력 단위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위

문헌정보관리 직무상의 능력 단위 중 필요하다고 생각한 단위에 대해서는 '문헌정보수집',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능력 단위가 제시되었다. 도서관은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이용자의 편의와 요구를 고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네 제일 밑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었는데요. 사서로서 공공, 학교, 전문도서관 등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대출 반납이나 목록분류작업 이외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업무 중 하나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 '이용자(use)'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검색, 추출, 가공, 도출해서 서비스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서입니다.” (참가자 2)

② '문헌정보관리' 직무상의 능력 단위 중 비교적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능력 단위

문헌정보관리 직무상의 능력 단위 중 비교적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단위에 대해서는 '문헌정보보존',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 '문헌정보실무연구수행'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 영역에서의 도서관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헌정보학은 많은 이용자와 대면하는 학문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과목 구성을 할 순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떨어지는 단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뽑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뭐 일단은 실무 연구수행을 저도 사실상 도서관에 들어와서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참가자 4)

(3) NCS 능력 단위와 현장 직무와의 연관성 및 개선안

① 현장 직무와 교과과정의 연관성

문헌정보학과 학위 취득을 위해 수강한 교과목 중 현장 직무와 가장 큰 연관성을 띤 교과목의 경우 '학교도서관운영론', '정보검색론', '대학도서관 경영론', '문헌정보조직', '공공도서관론' 등 주로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경영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응답자들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응답자들의 소속에 따라 나타나는 도서관의 종별 차이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 '문헌정보관리' 직무상 필요 및 추가 요소 NCS 직무 능력 단위 중 현장 직무와 가장

큰 연관성을 띤 직무 단위로는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조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등의 직무 단위가 제시되었다.

(4) NCS 연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안

①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능력 단위 고려의 필요성 및 활용 방향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NCS 직무의 능력 단위 고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계의 필요성’과 ‘보완 후 연계’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계의 필요성’의 경우 “실무중심주의인 문헌정보학 과목의 특성상 NCS와의 연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취업과 실질적 연계가 있는 NCS를 교과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완 후 연계’의 경우 “NCS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제과정을 거쳐 표준 교과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요한 것들은 다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참고는 할 수 있대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 문헌정보 능력 단위 이런 것들을 잘 고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걸러내고 해서 표준 교과가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서 자격 개편으로서 기초 자료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많이 보완된다면 좋겠습니다.” (참가자 5)

6.3 소결

앞에서 기술된 3장과 4장을 통해 설문조사용 표준교육과정 시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5장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9개 협의회 회원기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102명의 응답을 회신 받았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5장 설문조사의 주요한 결과는 졸업 이후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본 6장의 대면조사 즉, 포커스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인터뷰 질의지는 앞선 3장, 4장, 5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세부적으로 3장과 4장을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응답자들이 과거에 이수한 커리큘럼에 대한 인식과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5장의 설문조사 응답지를 기반으로 하여 현장에서 트렌드와 현재 개설된 교과목의 괴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의 표준교육과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면 이용자와 도서관 및 정보센터 경영 관련 교과목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활용교육, 정보검색론과 같은 교과목을 통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용자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이론의 증용성과 함께 이를 실무에 적용하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교과목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7. 결론 및 제언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문헌정보학 학부 과정의 교육과정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자격증의 발급 또한 별도의 시험 과정 없이 학위 과정을 거칠 경우 발급되고 있다. 그렇기에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채택되는 과목 또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대외적으로 교육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와 고시, 2021년에 개설된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등을 분석하여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시안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사서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표준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현재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사서 자격 기준과 관련된 국가의 고시와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국내 36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과목을 수집하여 교과목의 분야를 포함한 4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앞선 분석을 통해 표준교육과정 시안을 작성하였고, 현장 의견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및 정보센터 사서의 의견

은 공통적으로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정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정보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현장 적응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서관 및 정보센터 현장은 이용자와 직면하는 현장이며, 업무 공간 또한 이용자의 공간과 공유되는 경향이 다수 존재한다. 그렇기에 현장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고,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완성되길 요구하고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대외적 신뢰도 확보를 위함이다. 현재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할 경우 '2급 정사서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사서의 경우에도 전문 자격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대외적인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에는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 면허와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 제도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면허와 자격의 경우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정규화된 시험 과목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수렴한 현장 의견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지식사회에 발맞추어 정보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현장 적응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추후 각종 시험 및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크게 전공 교양, 이용자 서비스, 자료관리, 운영 관리의 영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공 교양 영역에서는 문헌정보학개론

과 정보학개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해당 과정 이수생은 수강자들로 하여금 사서로서의 직업 윤리와 업무의 기본적인 전공 지식을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둘째, 이용자 서비스 영역에서는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론, 정보검색론, 주제별 정보원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응답자의 소속 관 종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으로 분석되며, 도서관 및 정보센터 현장의 즉각적인 투입을 위해 해당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온/오프라인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은 자료임을 고려하였을 때, 자료 관리 영역에서는 분류, 목록과 같은 자료조직론, 장서관리론, 장서개발론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정확한 자료의 구분과 관리, 적극적인 이용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장서개발과 같은 교과목은 현장과 밀접한 접점을 가지는 교과목이기에 현장 의견 조회과정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론, 문헌정보서비스 마케팅 기획, 데이터베이스론과 같은 운영 관리 영역의 교과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선 현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일부 세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론의 경우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과 같이 서비스 대상의 차이로 인해 운영 방식에서도 일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해당 교과목에서는 관종별 세분화·전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의 소속 관종별로 독서 영역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영역 등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이는 현

장별 최신 트렌드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판단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특화 교과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서지학과 같은 업무 빈도가 낮은 경우 교과목의 사장을 방지하고, 혹시 모를 서비스 요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단순히 표준화만이 필요한 것이 아닌 다양한 이용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과목의 운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 국가직무표준을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조사 과정에서 '문헌정보관리' 직무표준의 개선 사항 및 한계점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역량 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선안을 사용하지 않고 사서들의 NCS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확인하고자, 기본적인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표준 요소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용 표준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빈도 및 키워드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의로 시안을 개발해 연구에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표본의 수가 적어, 설문 결과를 국내 전체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근무 중인 사서 또는 정보전문가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현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과목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현장의 정보전문가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과 문헌정보학 분야 NCS 국가직무표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앞으로 개발될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에 제안점 및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렇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해 더 많은 설문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NCS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NCS 학습 모듈을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접목해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2021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매뉴얼.
- 노동조 (2009).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451-468.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451>
-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모형 및 표준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55-82. <https://doi.org/10.4275/KSLIS.2012.46.2.055>
- 박은경, 홍성화, 오상훈 (2015). 4년제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도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30(4), 29-52.
- 박태연, 한희정, 오효정, 양동민 (2018). 4 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사서의 핵심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27-356. <https://doi.org/10.16981/kliiss.49.201806.327>
- 유사라 (2018). 메타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문헌정보학 전공 커리큘럼 진단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91-220.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191>
- 이선화 (2021). 이선화 교육학. 서울: 미래가치.
- 이종창, 권나현 (2017). 역량기반 사서계속교육을 위한 핵심역량지표 및 콘텐츠개발: NCS적용 타당성 분석 및 보완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207-235.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207>
- 이하진, 권기정 (2018).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적용한 회계·세무 교육과정과 교육성과간의 관련성 분석. 국제회계연구, 79, 127-147.
- 정진호, 이창무 (2019). 국내 산업보안학과의 교과과정 분석: 교육 영역과 과목별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4(2), 29-53. <https://doi.org/10.7838/jsebs.2019.24.2.029>
- 조대연 (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 차성중 (2016a).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현장실습 교육

- 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457-491.  
<https://doi.org/10.4275/KSLIS.2016.50.1.457>
- 차성중 (2016b).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구성요소의 중요도 및 활용도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215-247.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215>
- 최상희 (2019). 교과 키워드 분석을 통한 문헌정보학과 교육 주제 연구: 한국·미국 정보기술관련 교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43-60.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6.43>
- 최상희, 하유진 (2019).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주제에 대한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1), 53-71. <https://doi.org/10.3743/KOSIM.2019.36.1.053>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국가직무능력표준. 출처: <https://www.ncs.go.kr/index.do>
- 홍승연, 김소은, 이혜미 (2021). 모잠비크 재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효과성 평가 사례연구: 사용자 및 관리자 관점에서 IPA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2), 93-122.  
<http://dx.doi.org/10.21212/IASR.25.2.4>
- 홍현진, 노영희, 김동석 (202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36.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05>
- Borich, G.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1), 39-42.
- Martilla, J. A. & James, J. C. (199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Saladyanant, T. (2014).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in Thai universities compared with IFLA Guidelines for Professional Library/Information Educational Program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47, 120-12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S. J. (2016a). A study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based curriculum design of the practical training cours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457-491.  
<https://doi.org/10.4275/KSLIS.2016.50.1.457>
- Cha, S. J. (2016b). A study on improvement of NCS duty compon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by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and uti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215-247.

-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215>
- Cho, D. Y. (2009). Exploring how to set priority in need analysis with survey.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5, 165-187.
- Choi, S. H. & Ha, Y. J. (2019). An analysis on curriculu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53-71.  
<https://doi.org/10.3743/KOSIM.2019.36.1.053>
- Choi, S. H. (2019). Identifying topics of LIS curricula by keyword analysis-focu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classes of US and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43-60.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6.43>
- Hong, H. J., Noh, Y. H., & Kim, D. S. (2021). A study on status and necessity of the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36.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05>
- Hong, S. Y., Kim, S. E., & Lee, H. M. (2021).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saster information system using an IPA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nd maintenance managers: a case study of mozambiqu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5(2), 93-122.  
<http://dx.doi.org/10.21212/IASR.25.2.4>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21).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Available: <https://www.ncs.go.kr/index.do>
- Jung, J. H. & Lee, C. M. (2019). An analysis of industrial security curriculums in colleges.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24(2), 29-53.  
<https://doi.org/10.7838/JSEBS.2019.24.2.029>
- Lee, H. J. & Kwon, G. J. (2018). Analysis of relevance between accounting · taxation curriculum and educational performance applying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79, 127-147.
- Lee, S. H. (2021). Lee Sun Hwa Education. Seoul: Miraegachi.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21). 2021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Manual.
- Noh, D. J.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for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451-468.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451>
- Noh, Y. H., Ahn, I. J., & Choi, S. K. (2012). A study of the curriculum operating model and standard courses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55-82.

<https://doi.org/10.4275/KSLIS.2012.46.2.055>

Park, E. K., Hong, S. H., & Oh, S. H. (2015).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0(4), 29-52.

Park, T. Y., Han, H. J., Oh, H. J., & Yang, D. (2018). A study on the librarian's key tasks of the era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327-356. <https://doi.org/10.16981/kliss.49.201806.327>

Yi, J. C. & Kwon, N. H. (2017). Developing a competency: base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s based o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207-235.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207>

Yoo, S. R. (2018). A diagnostic analysis of lis curriculum from the meta-literacy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191-220.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191>